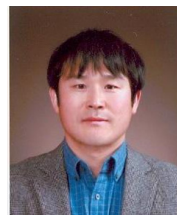


체제이행기 카자흐스탄 사회의 변화와 고려인의 적응*

선 봉 규 (전남대학교)
<polisun@hanmail.net>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고려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카자흐스탄은 토착 민족주의 정책으로 카자흐어를 국가어로 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카자흐어 능력 수준이 매우 낮은 고려인들은 주류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려인들은 오랫동안 다민족적 상황에서 수많은 접촉과 교류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 간 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 및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주류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에 고려인의 문화를 전파시키거나 두 문화를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이행기에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고려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수준은 보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현재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카자흐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카자흐어

1)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족대표 단체인 고려인협회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체제이행기, 카자흐스탄, 카자흐화, 사회적응, 민족차별

I. 머리말

독립국가연합(CIS)¹⁾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가장 원형적인 디아스포라적 삶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19세기 후반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기에 러시아 연해주지역으로 이주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 등 대규모 민족집거지를 형성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1923년에 소련이 연해주를 점령하면서 한인들은 점차 사회주의화 되었으며, 집단농장 작업을 통해 연해주지역을 개척했다. 1937년 스탈린의 지시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CIS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173,832명)과 카자흐스탄(105,832명)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²⁾ 현재 CIS지역에 살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고려인은 23,6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인은 16,141명이고,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인은 1,698명, 키르기스스탄 638명, 타지키스탄 64명 등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거주 고려인의 송출지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비해 한국 타 지역으로 이주가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고려인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일정한 거주 구역이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으며, 민족교육이 금지되고 국가기관의 취업 등 사회, 정치적 진출이 봉쇄된 채 살아야 했다(임채완 외 2013, 85).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체제가 들어서면서 고려인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으로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³⁾ 그러나 우수한 소수민족으로서

1)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연방을 구성했던 11개 공화국이 창설한 국가연합체이다. 현재는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이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2008년과 2014년에 탈퇴했다.

2) <http://www.mofa.go.kr/main/>(검색일: 2015/01/05)

소비에트화한 고려인들은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해체,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강력한 토착 민족주의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다(이진영 2014).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 국가가 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이른바 체제이행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선언 이후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⁴⁾을 이룩하고 있다(김상철 2013, 47). 카자흐스탄은 1993년 헌법에서 카자흐어를 국가어로 격상시켰으며,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소련시기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1991년 독립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고려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언어 소통 문제,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새로운 문화와 가치 습득, 민족 차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체제이행기에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획득한 자료를 분석한다. 먼저 설문조사는 2014년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수행되었으며, 총 16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159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설문지는 ‘언어 소통 능력’ 5문항, ‘사회구성원과의 교류 및 소통’ 5문항, ‘주류민족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태도’ 5문항, ‘민족차별’ 10문항 등 총 25문항⁵⁾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를 SPSS Statistics 20.0 버전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2015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쉬토베, 딸가르 등을 방문하여 고려인의 이주 과정 및 정착 생활,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발레리(2011, 153-171)의 연구를 참조.

4) 카자흐스탄 경제의 특성을 보면, 1인당 GDP의 경우 1995년 1,061달러에서 2012년 12,007달러로 급상승 했으며,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은 러시아의 BBB보다 높은 BBB+이며, 기업환경은 47위에 랭크되어 있다(김동우 2013, 2).

5)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등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했다.

II. 고려인의 새로운 도전: ‘소비에트화’에서 ‘카자흐화’로

카자흐스탄은 면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이며, 13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족 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다민족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자흐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권력구축과 경제적 부의 분배 과정에서 카자흐인을 선호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카자흐화’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카자흐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스탄 국가 기관의 카자흐화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1년 독립 직후부터 카자흐인의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한 바, 1994년 이미 정부 부처와 대통령궁의 주요 행정 관료 중 약 80% 이상을 카자흐인이 독점하였다. 2000년에는 카자흐인의 권력 독점화가 더욱 심화되어 국가 행정 부처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8%에 불과하였다(손영훈 2006, 134). 더욱이 카자흐스탄 하원의 총 77석 중 카자흐인이 58석을 차지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4개 주지사직의 대다수도 카자흐인으로 임명되었다.⁶⁾ 2007년에 카자흐스탄 선거법이 개정되어 하원 의석이 77석에서 107석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는 카자흐스탄 하원 107석 중 카자흐인이 76석을 차지했으며, 러시아인 21명, 독일인 2명, 나머지는 벨라루스인, 발카르인, 고려인⁷⁾, 우크라이나인, 위구르인, 우즈베크인 등이 진출해 있다.⁸⁾

둘째, 카자흐어의 국가언어 지정이다.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과거 소련 지배의 유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민족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⁹⁾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어를 사용했던 소수민족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불평등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어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의 민족어 공식 언어 정책은 주춤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초기에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주

6)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074842940>(검색일: 2015/02/05)

7) 김로만 의원으로, 현재 고려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8) <http://www.parlam.kz>(검색일: 2015/02/05)

9)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12월 8일 공포된 헌법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어는 우즈베크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주변국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전체인구의 80%가 우즈베크인이라는 점에서 소수민족에게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성동기 2005, 55).

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반발에 의해 1997년에 수도를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부지역의 아스타나로 옮기게 되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민족 간의 의사소통 언어로 러시아어를 지정하는 등 언어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신양섭 2003, 29).¹⁰⁾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압박도 있지만, 무엇보다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어 사용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어보다는 러시아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990년대 카자흐인들 중 약 25-40%가 카자흐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문서는 카자흐어로만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방송되는 각종 언론매체는 현재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신문방송 언어는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국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

이러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류민족의 인구 분포와 관련되어 있다(성동기 2005, 64).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우즈베크인¹²⁾이라는 점에서 우즈베크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카자흐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¹³⁾ 카자흐스탄은 1997년 이후 카자흐인이 다수민족이 될 정도로 인구 구성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점을 안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언어법 제4조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국가어는 카자흐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어는 행정, 법령, 공문서, 공공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국가어를 향유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의무이며, 국어는 카자흐스

10)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에 ‘카자흐어 학습 장려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민족어의 교육과 확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89년 9월 22일에 언어법이 통과되어 카자흐어가 러시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격상되었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 6월에 ‘2000년까지 공화국내에서 카자흐어와 다른 언어의 발전에 대한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1991년 독립 선언 이후 1993년 헌법에서 카자흐어를 공식어로 규정했다(김혁 2010, 95).

11)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카자흐스탄 유학생들(파르피예브스름, 바스타우바에바 알리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009년 현재 약 2,7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우즈베크인은 80%에 달하며, 타지크인 5%, 러시아인 3.7%, 카자흐인 3.6%, 고려인 0.6% 등이다. 러시아인은 1989년 통계에 따르면 35%였으나 2009년에는 3.7%로 대폭 감소하였다.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4/11/05)

13)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인구 구성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1999년
카자흐인	30.3%	32.6%	36.0%	40.1%	53.4%
러시아인	42.7%	42.4%	40.8%	37.4%	29.9%

출처: 김혁(2010, 96)에서 재인용.

탄 국민을 통합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국어를 백방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어 유지에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은 정부, 행정부, 지방행정부와 집행기관들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⁴⁾ 특히 최근 2013년 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교육포럼에서 “국민은 앞으로 3개 국어를 배워야 한다”면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할 것을 밝혔다(연합뉴스 13/12/01). 이러한 언어정책의 변화는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표-1〉 카자흐스탄 주요 민족의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1989년	1999년	2014년
카자흐인	6,534,616	7,985,039	11,244,547
러시아인	6,227,549	4,479,620	3,685,009
우즈베크인	332,017	370,663	521,252
우크라이나인	896,240	547,052	301,346
위구르인	185,301	210,365	246,777
타타르인	327,982	248,954	203,108
독일인	957,518	353,441	181,928
고려인	103,315	99,665	105,400
기타	899,926	658,200	671,407
합계	16,464,464	14,952,999	17,160,774

출처: 파르피에브 스름(2015, 16).

셋째, 카자흐스탄은 특정 민족집단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995년 헌법에서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특정 민족집단의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은 민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조직을 금지하는 법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현 승수 2014, 252). 특히 카자흐스탄은 민족 간 갈등을 막고 민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장치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이하 민족회의)’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족회의는 1995년에 창설되어 대통령이 의장이며,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을 하는 헌법 기구이다. 민족회의는 국가기관, 민족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고, 2011년 현재 모두

14) <http://www.kaznu.kz/ru/1969>(검색일: 2014/11/20)

3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민족회의는 카자흐스탄내의 모든 민족이 동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의회 내에서 민족의 대표성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민족회의 회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고 있다(현승수 2012, 125-126). 2007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민족회의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8명과 9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카자흐스탄에는 특정 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족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각 민족의 문화, 언어 및 전통에 대한 부흥 및 선전 진흥하는 것; 둘째, 카자흐스탄 및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사고 형성; 셋째, 민족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 넷째, 각 민족 그룹의 구성원 사이의 우호 관계에 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이다.

요컨대, 민족회의는 체제이행기 카자흐스탄 사회의 민족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민족의 조직들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정부적 활동내지 친정권의 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Ⅲ. 고려인의 사회적응 및 민족차별 양상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65명(40.9%), 여성이 94명(59.1%)이다. 연령은 10대가 10명(6.3%), 20대가 40명(25.1%), 30대가 28명(17.64%), 40대가 29명(18.2%), 50대가 25명(15.7%), 60대가 17명(10.7%), 70대가 10명(6.3%)이다. 학력은 중졸이 3명(1.9%), 고졸이 24명(15.1%), 전문대학졸이 43명(27.0%), 4년제 대졸이 78명(49.1%), 대학원졸이 10명(6.3%), 무학이 1명(0.6%)이다.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29명(18.2%), 공무원이 3명(1.9%), 사무직이 25명(15.7%), 판매직이 18명(11.3%), 서비스직이 23명(14.5%), 생산직이 22명(13.8%), 농업이 5명(3.1%), 주부가 8명(5.0%), 학생이 8명(5.0%), 기타가 18명(11.3%)이다. 혼인여부는 기혼이 90명(56.6%), 이혼이 17명(8.8%), 사별이 8명(5.0%), 미혼이 47명(29.6%)이다. 세대는 1세가 10명(6.3%), 2세가 45명(28.3%), 3세가 69명(43.4%), 4세가 30명(18.9%), 5세가 5명(3.1%)이다. 배우자의 민족은 고려인이 98명(61.6%), 러시아인이 9명(5.7%), 카자흐인이 4명(2.5%), 기타 1명(0.6%), 해당없음이 47명(29.6%)이다. 출생국가는 카자흐스탄이 122명(76.7%), 우즈베키스탄이 18명(11.3%), 러시아가 14명(8.8%), 키르기스스탄이 3명(1.9%), 타지키스탄이 2명(1.2%)이다. 현 거주 지역은 알마티가 99명(62.3%),

딸디구르간이 22명(13.8%), 우쉬토베가 17명(10.7%), 코스타나이가 16명(10.1%), 타쉬켄트가 2명(1.2%), 기타 3명(1.9%)이다. 현 거주지의 이주 동기는 가족동반이 38명(23.9%), 교육문제가 15명(9.4%), 취업문제가 20명(12.6%), 결혼이 9명(5.7%), 현지출생이 66명(41.5%), 기타 11명(6.9%)이다.

〈표-2〉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59)

특성		빈도 (명)	비율 (%)	특성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65	40.9	세대	1세	10	6.3
	여성	94	59.1		2세	45	28.3
연령	10대	10	6.3		3세	69	43.4
	20대	40	25.1		4세	30	18.9
	30대	28	17.6		5세	5	3.1
	40대	29	18.2	배우자 민족	고려인	98	61.6
	50대	25	15.7		러시아인	9	5.7
	60대	17	10.7		카자흐스탄인	4	2.5
	70대 이상	10	6.3		기타	1	0.6
학력	중등	3	1.9		해당없음	47	29.6
	고등	24	15.1	출생 국가	카자흐스탄	122	76.7
	전문대학	43	27.0		우즈베키스탄	18	11.3
	4년제대학	78	49.1		러시아	14	8.8
	대학원	10	6.3		키르기스스탄	3	1.9
	무학	1	0.6		타지키스탄	2	1.2
직업	전문관리직	29	18.2	현 거주지	알마티	99	62.3
	공무원	3	1.9		딸디구르간	22	13.8
	사무직	25	15.7		우쉬토베	17	10.7
	판매직	18	11.3		코스타나이	16	10.1
	서비스직	23	14.5		타쉬켄트	2	1.2
	생산직	22	13.8		기타	3	1.9
	농업	5	3.1	현 거주지 이주동기	가족동반	38	23.9
	가정주부	8	5.0		교육문제	15	9.4
	기타	18	11.3		취업문제	20	12.6
	학생	8	5.0		결혼	9	5.7
결혼 여부	기혼	90	56.6		출생	66	41.5
	이혼	17	8.8		기타	11	6.9
	사별	8	5.0				
	미혼	47	29.6				

2) 면접조사

연구자는 지난 2015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스탄을 현지 방문하여 러시아어 통역자와 함께 조사대상자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아래 <표-3>은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중 강제이주 경험자는 1명이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에 정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강제이주 경험자를 제외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 출생자는 2명이며, 타지키스탄 출생자는 1명, 러시아 사할린 출생자는 2명,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출생자는 1명이다.

<표-3>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성명 ¹⁵⁾	성별	연령	출생지	이주루트
1	최○○○○	남	67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2	김○○	여	66세	러시아 사할린	러시아 사할린→카자흐스탄
3	임○○○	남	43세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4	유가이 ○○○○	남	44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5	천○○○	남	90세	러시아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카자흐스탄
6	박○○○	남	75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7	조○○○	여	70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8	김○○	남	77세	러시아 사할린	러시아 사할린→카자흐스탄
9	김○○○	남	27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카자흐스탄

2. 고려인의 사회적응

고려인의 사회적응에 있어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그들의 삶이 다민족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한발레리 2011, 155). 즉 고려인의 삶은 다양한 민족들과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거주국사회의 민족적 환경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다. 고려인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 다양한 지역,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접촉, 교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인의 경험은 거주국사회에서 훌륭한 적응의 수단이 되었고, 다른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15) 일부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관계로 이와 같이 표기함.

1) 언어 소통 능력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언어 능력일 것이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의 필수요소이며, 거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거주국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 습득, 그리고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면서 현지사회의 주변인이 될 것이며, 일상생활 전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응답자의 언어 구사력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인들은 러시아어 구사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려말 구사 수준이 현지어인 카자흐어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표-4> 언어 구사 수준

언어	언어 구사 수준				
	매우 못함	조금 못함	보통	조금 잘함	매우 잘함
러시아어	0.6	5.7	11.9	-	81.8
카자흐어	45.9	46.5	5.0	2.5	-
고려말	41.5	30.8	17.0	6.3	4.4

최근 고려인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 중에 주목할만한 점은 젊은 세대들의 모국어 사용, 민족문화 및 풍습 등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고려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 젊은 고려인들이 한류에 관심은 많지만 카자흐스탄 젊은이보다 한국어를 배우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없어서 그래요. 영어나 카자흐어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김○○/남/27세)

아들 둘이 있는데 한국말이 싫다고 해요. 내가 한국말을 잘 하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젊은 고려인들 중 한국에 관심은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대학졸업해서 좋은 일자리 찾는데 열중해요. 고려인 문화나 역사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서 걱정이예요. 관심이 없어요.(김○○/여/66세)

16) 이러한 사실은 윤인진(201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그룹을 만들어서 고려말을 가르쳐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잘하게 되요. 꼬마일 때부터 한국말하고 풍습지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젊은이들 사고방식이 우리와 달라요.(최○○○/남/67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마티고려문화중앙에서는 청년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¹⁷⁾ 이와 관련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무궁화학교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가 2명 있어요. 청년반(15세-20세)은 매일(월~금) 저녁 5시-7시에 진행하구요. 한 20명이 참여해요. 노인반은 화, 목에 오전, 오후 두 그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배우려면 한국교육원에 가서 해요.(김○○/여/66세)

다음으로, 고려인의 카자흐어 의사소통 능력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문항 모두에서 보통 미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인들은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어는 꼭 배워야 해요. 이 나라 말이니깐. 그런데 카자흐어 배운 적이 없어서 단어는 조금 알지만 말하는데 힘들어요. 아직도 카자흐사람들이 카자흐어를 잘 못한 편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랑 습관으로 러시아말을 많이 사용해요.(임○○○/남/43세)

<표-5> 카자흐어 의사소통 능력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카자흐어로 전달할 수 있다.	39.0	33.3	11.3	15.1	1.3	2.03	1.106
TV 드라마의 내용을 카자흐어로 설명할 수 있다.	43.4	35.2	10.7	10.1	0.6	1.89	.997
행정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카자흐어로 적을 수 있다.	35.8	30.2	6.3	25.2	2.5	2.28	1.259
문자나 메일을 카자흐어로 보낼 수 있다.	37.7	29.6	13.8	16.4	2.5	2.16	1.174

17) 알마티한국교육원에서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고려노인대학을 개설하여 한국어, 한국역사 강좌, 문화강습,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다(월드코리아 14/03/07).

2) 사회구성원 간 관계

사회구성원과 교류 및 소통은 소수민족이 거주국사회의 생활문화와 가치를 학습하고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려인의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구성원 간 교류 및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나는 주변 사람들과 경조사가 생기면 서로 축하나 위로를 해 준다”(4.11)이며, 다음은 “나는 주변 사람들과 오락, 취미생활, 쇼핑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4.02), “주변 사람들은 나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3.94),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3.88) 순이다.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나는 이웃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한다”(3.45) 이다.

<표-6> 사회구성원 간 교류 및 소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M)	표준편차(SD)
나는 주변 사람들과 오락, 취미생활, 쇼핑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	8.2	7.5	8.2	26.4	49.7	4.02	1,275
나는 이웃을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한다.	15.7	20.1	6.3	18.9	39.0	3.45	1,546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10.1	9.4	7.5	28.3	44.7	3.88	1,342
나는 주변 사람들과 경조사가 생기면 서로 축하나 위로를 해 준다.	6.3	10.7	3.8	23.9	55.3	4.11	1,258
주변 사람들은 나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6.3	1.9	12.6	50.3	28.9	3.94	1,029

이와 같이 고려인들은 지역사회 주변의 이웃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인의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0대와 20대는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이외의 세대에서는 고려인과의 혼인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즉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도시 거주 고려인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타민족과의 결혼에 보수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175-176).¹⁸⁾

18) 도시 거주 고려인은 ‘절대 반대’ 3.2%, ‘가급적 안하는게 좋다’ 31.2%, ‘상관없다’ 65.6%를 보인 반면, 농촌 거주 고려인은 ‘절대 반대’ 2.9%, ‘가급적 안하는게 좋다’ 50.0%, ‘상관없다’ 47.1%를 보였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176).

고려인에 대한 자부심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은 고려인끼리 했으면 해요.(임
○○○/남/43세)

3) 주류민족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태도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거주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수용은 사회 적응 과정에서 중요하다. 특히 체제이행기에 있는 사회에서 주류민족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더욱 그렇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인들은 카자흐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익히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생활풍습이나 생활양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4.13)이며, 다음으로 “나는 카자흐인과 고려인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09), “나는 카자흐인과 고려인의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다”(3.92), “나는 카자흐인과 고려인의 문화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80), “나는 카자흐문화를 배우듯 고려인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79) 순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고려인들은 카자흐 문화와 고려인 문화 간의 교류와 소통을 중시하는 통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에서 된장, 간장, 김치 만들어 먹었지만, 지금은 김치만 해먹어요. 아파트에 사니까. 고려인 음식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음식도 자주 만들어 먹어요. 어떤 날은 카자흐스탄 음식 먹고, 또 어떤 날은 우즈베키스탄 음식 먹고, 시래기국, 된장국도 먹어요. 아내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음식 잘 만들어요.(유가이○○○/남/44세)

<표-7> 주류민족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태도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평균 (M)	표준 편차 (SD)
나는 카자흐인과 고려인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1	1.3	12.6	49.1	34.0	4.09	.892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생활풍습이나 생활양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0.6	1.3	11.9	56.6	29.6	4.13	.713
나는 카자흐문화를 배우듯 고려인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9	4.4	18.2	44.0	26.4	3.79	1.099
나는 카자흐인과 고려인의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다.	5.0	1.9	16.4	49.7	27.0	3.92	.981
나는 카자흐인과 고려인의 문화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8	6.9	20.8	42.8	25.8	3.80	1.024

3. 고려인의 민족차별 인식

주지하다시피 다민족국가에서는 거주국의 민족정책에 따라 주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협력내지는 갈등이 발생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은 주류민족인 카자흐인의 민족 의식을 고양하는 카자흐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민족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정체성을 만드는 ‘카자흐스탄화’를 통해 130여 민족의 특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승수 2014, 250).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민족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표-8> 고려인의 민족차별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M)	표준 편차 (SD)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23.9	40.3	13.2	16.4	6.3	2.41	1.197
나는 나의 외모나 언어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27.0	43.4	13.8	10.7	5.0	2.23	1.115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35.8	32.7	23.3	5.7	2.5	2.06	1.023
나는 고려인이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8.8	32.7	18.2	10.7	29.6	2.69	1.197
나는 고려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9.4	32.1	13.8	15.1	29.6	3.23	1.411
나는 고려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5.7	37.7	23.3	12.6	10.7	2.65	1.202
나는 일상생활에서 문화, 예절의 차이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22.6	45.9	11.3	10.1	10.1	2.39	1.227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26.4	51.6	11.3	6.3	4.4	2.11	1.101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21.4	48.4	9.4	13.8	6.9	2.36	1.166
나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22.0	45.3	11.9	13.2	7.5	2.39	1.185

고려인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민족차별을 경험한 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통 미만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총 10개 항목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보인 항목은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2.06)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2.11), “나는 나의 외모나 언어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2.23),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2.36), “나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및 “나는 일상생활에서 문화, 예절의 차이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2.39), “나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2.41), “나는 고려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2.65), “나는 고려인이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2.69)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족차별에 관한 고려인들의 인식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립해서 카자흐말 하라고 하니깐 러시아 사람들이 싹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 없으니깐 카자흐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했지. 그래서 카자흐말도 하고 러시아말도 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원동(연해주)으로 많이 나갔어요. 타쉬켄트(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많이 나가구요.(조○○○/여/70세)

소련시절에는 걱정 덜 하고 살기 편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었니까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크게 걱정 안됐어요. 지금은 일 많이 해도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졌어요. 너무 비싸요. 근데 옛날에 비해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찬스도 많아졌어요.(유가이○○○/남/44세)

현재 카자흐스탄은 민족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소련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독립국가에 비해 인종차별은 거의 없어요. 카자흐민족도 옛날 소련시절에는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자르바예프¹⁹⁾ 대통령이 경제발전이나 민족화합을 잘 하고 있어요. 공화국이 발전하니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김○○/남/77세)

19) 면접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약간 너무 오래되어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직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일정하고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나고, 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더 했으면 해요.”(유가이○○○/남/44세)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즉 고려인들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해 58.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명드미트리 1997, 228).

한편,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보인 항목은 “고려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3.23)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제이행기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고려인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점차 주변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인진의 연구에서 확인되듯, 고려인들은 강한 민족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류민족의 언어를 습득하고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윤인진 2014, 88).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인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1980년대 후반 체제전환적 상황에서 민족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1989년에 ‘카자흐스탄 고려문화중앙’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1995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이하 고려인협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제1기 한구리 회장, 제2기 채유리 회장(상원의원), 현재 제3기 김로만 회장(하원의원)에 이르고 있다. 고려인협회는 모국어와 민족문화의 재생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 젊은 세대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들의 경우 모국어 및 민족문화, 민족풍습을 거의 잃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고려인사회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이 고려인협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사실에서 고려인사회는 민족대표 단체인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민족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양하고 카자흐스탄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는 통합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CIS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무엇보다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으로 거주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주류민족내지는 다른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발레리 2011, 156).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토착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고려인들은 거주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류사회 진출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CIS지역 고려인들은 거주국이 신생독립국으로 위상이 변화되고, 주류민족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비에트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20) 최근 젊은 고려인들의 한 단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즘 젊은 고려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교육을 받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을 쉽게 그리고 많이 벌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 해요. 통역하는거나 금융쪽에 관심 많아요.”(김○○○/남/27세)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카자흐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인의 반발로 수도를 이전하거나 러시아어를 공용어, 민족간의 의사소통어로 지정하는 등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성 및 정치활동 영역에서는 카자흐인이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영어를 제 3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들은 소비에트화의 영향으로 러시아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있으며, 현지어인 카자흐어와 고려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국가어로 카자흐어를 지정하고 있으며, 정부 공식 문서도 카자흐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전반적인 카자흐어 사용의 어려움은 고려인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고려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과 경험을 보면, 다민족적·다문화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구성원간의 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구성원간의 교류 및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의 주류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에 고려인의 문화를 전파시키거나 두 문화를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체제이행기에 놓여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고려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수준은 보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현재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1991년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고려인들은 소련체제의 유산과 새로운 카자흐화 정책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정관계 등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카자흐어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인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인들은 고려인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족대표 단체인 고려인협회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한계로 1990년대 초반 독립 이후 체제이행기에 있는 CIS지역 고려인의 현지사회 적응 및 민족차별 양상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해내고, 고려인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코리언의 생활문화』. 서울: 선인.
- 김동우. 2013. “카자흐스탄 경제 및 은행산업 점검.” 『KB경영정보리포트』 13, 1-28.
- 김상철. 2013. “현대 카자흐스탄 20년의 발전과 고려인 사회의 변화.” 『민족연구』 56, 46-75.
- 김 혁. 2010.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 명드미트리. 1997.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민족관계 의식조사 보고서.” 『재외한인연구』 7, 223-232.
- 성동기. 2001. “우즈벡 다민족정책과 민족주의: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고려인의 위상 재조명.” 『재외한인연구』 11, 99-129.
- _____. 2005. “구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나타나는 고려인의 실태 비교.” 『비교문화연구』 17, 53-75.
- 손영훈. 2006.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 문제’와 카자흐화 정책.” 『중동연구』 25(2), 117-150.
- 신양섭. 2003. “소련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각 국의 문화정책 연구.” 『중동연구』 22(1), 103-158.
- 양원식. 1998.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회문제.” 『재외한인연구』 7, 45-56.
- 윤인진. 2014.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사회정체성과 언어 사용 실태.” 『재외한인연구』 33, 61-91.
- 이진영. 2014. “이주 150년 고려인과 통일.” 『통일고리』 97.
- 임채완 · 선봉규 · 박경환 · 전형권 · 이장섭 · 허성태. 2013.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 루트와 기억』. 성남: 북코리아.
- 파르피에브 스름. 2015. “위구르인의 민족정체성 연구: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한발레리. 2011.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적응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 『디아스포라 연구』 5(2), 153-171.

- 현승수. 2012. “카자흐스탄내 비카자흐계 민족 엘리트의 통제와 관리” 『중동연구』 31(1), 109-136.
- _____. 2014.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정책: 체첸인구시인 디아스포라의 사례.” 『러시아연구』 24(1), 245-278.

- 월드코리안 14/03/07
- 연합뉴스 13/12/01

- <http://www.mofa.go.kr/main/>(검색일: 2015/11/05)
- <http://www.parlam.kz/>(검색일: 2015/02/05)
- <http://ko.wikipedia.org/>(검색일: 2014/11/05)
-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074842940>(검색일: 2015/02/05)
- <http://www.kaznu.kz/ru/1969>(검색일: 2014/11/20)

● 투고일: 2015. 2. 11. 심사일: 2015. 2. 12. 게재확정일: 2015. 2. 17.

The transitional period of changes in society system of Kazakhstan and Koreans adaptation

Sun, Bong K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daption of Koreans aft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 changes in Kazakhstan since Achieving Independence in 1991.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is the survey and interview data.

The study has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Currently Kazakhstan native nationalism had been designed with establishing policy as well as the Kazakh Language as national language. As a result, Koreans have difficulties in many levels of social life system because of the Kazakh Language skill are on a very low level. Secondly, Koreans has showing flexible attitude because of long experiences and numerous contacts and exchanges with other nations. For these characteristics Koreans in Kazakhstan shows a smooth communication exchange with the community members. Thirdly, Koreans were found to be positive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ulture and values of the Kazakhstan national mainstream. Also, Koreans show a positive reaction to connect the two cultures and spread the Korean culture in Kazakhstan society. Finally, levels of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Koreans in Kazakhstan society shows that it is less than normal ones. However, Koreans have a relatively poor experience in their current job. So, that's why Koreans need to try to improve their skills according to the Kazakhstan policy.

<Key words> Transition Period, Kazakhstan, Kazakhification, Social Adjustment, Ethnic Discrimination